

# 무주, 주민생활안정 지원 만전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발굴 나서

무주군이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발굴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상자(신청 각 읍면사무소 맞춤형 복지팀)는 전북에 주소(주민등록 기간 1개월)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신청인 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의 30%이하여야 한다.

재산은 9500만원 이하(금융재산 3400만원 이하)며 부양의무자는 소

득기준(복지부 기준중위소득 기준 200% 적용)을 충족하면 된다. 단, 맞춤형급여수급자와 긴급복지급여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이은주 통합조사 팀장은 "7월부터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됐지만 그동안 맞춤형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장벽을 넘기가 쉽지 않았다"라며 "다행히 10월부터 관련 기준이 변경

있게 다가갈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생활안정이 최우선인 만큼 우리지역의 더 많은 주민들이 제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부의 맞춤형급여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전북형 생계급여(정액)로 1인 가구 20만4840원, 4인 가구 41만5210원으로 매월 말일 지급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청 역도부 2020년 연봉계약

## 최병찬 감독 포함 3명과 재계약하고 유망주 3명 영입

진안군은 군청 역도부 6명 전원과 2020년까지 연봉계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진안군청 역도부 내년 연봉총액은 2억 4900만원이다.

최병찬 감독은 지난해보다 500만원이 인상된 7400만원에 재계약했다.

올해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2관왕 한국역도 간판 유망주 선수는 600만원이 올라 내년에는 9500만원을 받게 된다. 유망주 선수는 내년 전국체전

에서 2관왕 이상에 오를 경우 25000만원을 옵션으로 받게 된다.

진안군은 국군체육부대에 복무하는 박민호 선수와 올해를 마지막으로 은퇴하는 이승준 선수 자리를 고등학교 유망선수로 채웠다.

정동민 선수(인천체고)는 올해 전국체육대회 고등부 2관왕에 오른 선수로 2800만원을 받는다. 최행남 선수(한양고)와 박성민 선수(순창고)는 각각 1800만원과 1400만원을 받는다.

진안군은 연봉과 별도로 월 45만원의 훈련비와 포상금, 국내외 전지훈련비, 숙소운영비를 선수단에게 지원한다.

선수단 연봉은 경기성적과 군정기여도, 감독평가 점수를 환산한 평점을 기준으로 결정됐다.

최성용 진안군수 권한대행은 "올해 유망주 선수가 아시아 역도선수권대회를 제패하는 등 역도부가 진안군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며 "우수 선수를 영입해서 내년에도 역도부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장수군은 19~20일까지 부산 해운대 한화리조트에서 군 재난안전분야 담당공무원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종사자들의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운동 활동에 따른 안전의

식 고취와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은 한국방재협회 정인주 실행위원의 '위기관리 매뉴얼과 13개 협업기능', 한국방재협회 배은희 강사의 '재난안전종사자의 지진 대응 방안', 이현숙 강사의 '응급처치 교육' 및 태풍 '미탁' 피해현장, 해안방재시설 견학 등으로 진행됐다.

이흥대 안전재난과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생활주변 및 위험 현장 등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의 대응능력 함양과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안전재난분야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통해 살기 좋은 풍요로운 미래의 땅, 합천 장수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 진안군, 내달 10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합동 점검

진안군이 오는 12월 10일까지 20일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장애인용 주차표지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표지의 차량번호 위·변조 불법 사용 사례 등 위반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

식 제고를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 것.

이번 점검은 진안군청 장애인복지팀과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관계자 합동으로 시행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장애인용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보호자 운전용 차량 및

주차가능표지부착차량 장애인 미탑승,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물건 적치 등 주차편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 행위 등이다.

군은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9일까지 불법주차 계도 안내 공문을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관광휴게시설 등에 발송하고 10월 주민자치회 홍보자료에 게시 하는 등 사전 계도 활동을 펼쳐 왔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사랑의 땀감 120톤 나눠

## 내일까지 경관녹지 작업단이 전달 계획

진안군이 숲가꾸기나 산림패트롤 등 경관녹지사업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난방용 땀감으로 지원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사람의 땀감 나누기 행사는 매년 동절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게 난방용 땀감을 지원하는 행사다.

올해 지원대상은 11개 읍·면에서 추천된 저소득 취약계층 31세대로, 가구당 4톤씩 총 120톤의 땀감을 지원한다.

난방용 땀감은 20일부터 22일까지 보유차량을 활용해 경관녹지 작업단이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진안군은 숲가꾸기 및 산림패트롤 등 서비스 사업으로 발생한 산림 부산물을 재활용함으로써 산물, 집중호우 등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화석연료 대체 효과와 소외계층 난방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철기 산업환경국장은 "버려지는 잡목들이 훈훈한 사랑의 땀감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도 겨울철 난방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등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이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앞두고 지난 19일 무주읍 내도리 앞섬과 후도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 무주,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설명회

무주군이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2021)을 앞두고 지난 19일 무주읍 내도리 앞섬과 후도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사업 목적 및 일정, 기대효과 등을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 최찬호 팀장은 "지적재조사는 새롭게 조사·측정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작업으로 100여 년 전 만들어진 종이 지적으로는 토지관리와 재산권 행사에 있어 어려움이 따라 꼭 필요한 절차"라며 "주민설명회에서 나는 의견들을 토대로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추

진과 완벽한 결과물을 얻어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토지경계 분쟁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되며 무주군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적상면 내창지구 등 관내 7개 지구 2265필지(641만 2978㎡)에 대한 토지경계를 확정했다.

한편, 2020년도 사업 대상지(측량비 1억2000여만원, 전액 국비)는 무주읍 내도리 앞섬지구와 후도지구로, 앞섬 지구는 325필지에 11만4984㎡이며 소유자는 136명이다. 후도지구는 299필지 12만1910㎡로 소유자는 352명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매아리

## 장수군, 2019년 임업인 간담회

장수군은 20일 산림소득으로 풍요로운 미래의 땅 합천장수 건설을 위한 '2019년 임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임업분야 현안 토론회와 함께 산림소득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장영수 장수군수, 한상대 장수군 산림조합장, 양희민 임업후계자 장수군협의회장을 비롯하여 관내 임업인, 산림관계 공무원, 산림조합 임직원 등 250명이 참석하여 그 동안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은 임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림 소득 향상을 위한 장수군의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날 임업인들은 산림분야 공익형직불제 도입, 임업인 교육지원 활성화, 장수군 대표 임산물 개발, 농업 부서와 비숙련 수준의 임업 보조지원 기준 등 임업인의 실질적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장영수 군수는 "공익적 가치가 126조에 달하는 산림분야 공익형직불제의 빠른 도입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당위를 강력하게 전달할 것"이라며, "간담회를 통한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임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 만성공팔병 합병증 검사비 신청 진안군보건소, 내달 20일 종료

진안군은 고혈압·당뇨병으로 등록된 군민들에게 지원하는 만성공팔병 합병증 검사비 신청이 오는 12월 20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30세 이상 주민으로 관내 1차 의료기관 또는 진안군보건소에 보건지소에서 고혈압·당뇨병으로 등록된 환자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병 자체의 위험성 뿐만 아니라 뇌졸중, 심근경색, 만성 콩팥병과 망막증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병이다.

합병증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과 치료를 위해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합병증 검사를 해야 한다.

진안군보건소는 환자 1인당 연 1회 만성 공팔병 합병증 검사비를 지원해 현재까지 약 550명이 혜택을 받았다.

검사비 지원은 등록환자가 읍내 지정 검진 의료기관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진안군보건소에서 의료기관에 검사비를 지급하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직 검사를 받지 못한 등록환자는 남은 기간 내 만성 공팔병 합병증 검사를 받아 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